

김녹촌 동시의 남성적 어조와 동심의 형상화

정 다 운*

〈차 례〉

1. 머리말
2. 시적 어조와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아동 인식
3. 남성적 어조와 동심의 형상화
4. 맺음말

1. 머리말

아동(兒童)은 역사적 구성물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인간의 삶 속에서 근원적 범주에 머무르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생각해 온 아동은 사실 근대 이후 포착된 존재들이다. 즉, 아동은 근원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고 재구성된 ‘역사적 구성물’인 것이다. 김녹촌의 동시에는 이러한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아동에 관한 인식이 남성적 어조를 중심으로 작품에 드러나고 있다.

본고는 김녹촌 동시에서 동심(童心)이 형상화되는 지점을 시적 어조를 중심으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심은 여타의 문학들과 아동문학을 변별해 주는 특징이다. 즉, ‘아동문학’의 문학성은 동심을 통해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BK연구원

드러나기 때문에, 동심이 형상화되는 지점을 추적하는 것은 김낙촌 동시의 문학성을 밝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김낙촌(金鹿村, 1927~2012)은 1927년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 사범 심상과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자격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4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에 종사하였다. 196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연>의 당선으로, 2012년 6월 28일 85세의 나이로 별세하기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1977년에는 ‘세종아동문학상’을, 1987년에는 ‘대구시문화상(문학부문)’을, 1999년에는 ‘대한민국 동요대상(노랫말 부문)’을 받는 등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김낙촌의 동시에는 ‘아동’을 ‘역사적 구성물’로 보는 시인의 인식이 시적 어조를 통하여 형상화되고 있다. 보통 시인의 인식은 창작활동을 통해 시적 언어로 기표화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은 일정한 동심을 구성한다. 이렇게 응집된 결과물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데, 독자의 작품 인식은 일차적으로 시적 화자의 어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시적 어조는 동시를 읽는 독자에게 일련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독자로 하여금 동심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적 어조’라고 평가되는 김낙촌 동시는¹⁾ 아동에게 친절하게 말

1) 김낙촌과 그의 작품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연구논문 3편과 평론 4편을 선행연구들로 아래에 제시한다. 평가의 방향은 같지만, 기존의 연구와 평론들은 공통적으로 김낙촌 동시의 어조가 남성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최지훈, 「김낙촌론-‘새’와 ‘풀’, 그 이질성과 동질성」, 『한국현대아동문학론』, 아동문예, 1991, 83-89쪽.

김성규, 「김낙촌 론-두 공간이 만나는 세계」, 『한국현대아동문학 작가작품론』, 집문당, 1997, 1001-1018쪽.

정다운, 「김낙촌 동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평론>

서효석, 「독자의 예리한 시선과 때문지 않은 시인의 생각」, 『아동문학평론』 제 57집, 아동문학평론사, 1990, 136-140쪽.

을 거는 여타의 동시들과 변별되는 지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김복춘의 동시에서 나타나는 남성적 어조를 살펴보는 것은, 김복춘 동시가 독자들에게 문학적 감정을, 그중에서도 동심을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김복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동시선집 『바다를 옆에 모시고』에 수록된 작품들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 김복춘은 생전에 다양한 저서를 출판하였다. 그중에서도 2006년에 출간된 김복춘의 동시선집 『바다를 옆에 모시고』에 수록된 작품들을 주 분석 텍스트로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저서가 시인이 “6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의 30여 년 동안에 쓴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골라 엮은”²⁾ 특정한 목적의식으로 발간된 선집이기 때문이다. 김복춘은 총 5부로 엮어진³⁾

원종찬, 「개구리 소리와 보리밭: 이오덕과 김복춘」, 『어린이문학』 제40집, 한국 어린이문학협회의회, 2000, 194-201쪽.

최명표, 「타다의 시학: 김복춘 론」, 『아동문학평론』 제61집,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91, 30-38쪽.

하청호, 「그리움의 정서: 정운모·김복춘·권영세·박두순·오승강·강현호」, 『아동문학평론』 제61집,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91, 74-78쪽.

- 2) “1988년에, ‘창비’에서 나의 첫 번째 시선집인 『꽃을 먹는 토끼』와, 2004년에, ‘파랑새어린이’에서 두 번째 시선집인 『독도 잠자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옛날에 나왔던 동시집들이 절판되는 바람에, 전성기에 써어졌던 어끼는 작품들이, 묵은 세월 속에 너무도 오랫동안 파묻혀 있어서, 못내 가슴이 아팠다. 절판된 동시집은, 『소라가 크는 집』, 『언덕빼기 마을 아이들』, 『태백산 품 속에서』, 『진달래 마음』, 『산마을의 봄』, 『꽃 앞에서』, 『한 송이 민들레야』 등이다. 그래서, 세 번째 시선집을 내려고 좋은 작품들을 진즉 뽑아 놓기는 했으나, (중략), 어언 7, 8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 그러다가, (중략) 마침 짬이 나서, 세 번째 시선집을 엮어 내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6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의 30여 년 동안에 쓰인,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골라 엮어 놓고 보니, 나 자신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 새삼 옛 추억이 생각나 감격스럽기도 하다.”(김복춘, 「머리말」, 『바다를 옆에 모시고』, 온누리, 2006, 4-5쪽.)
- 3) 『바다를 옆에 모시고』의 1부는 동시집 『쌍안경 속의 수평선』에서, 2부는 동시집 『언덕빼기 마을 아이들』에서, 3부는 동시집 『태백산 품 속에서』와 『소라가 크는

동시선집을 발간하며, 자신의 기존 동시집에 수록된 작품들 중 자신이 아끼는 작품들을 재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재선별 과정을 통하여 수록된 동시선집의 작품들에는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 독자들의 삶을 통하여 재생산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분명한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므로 이는 김녹촌 동시의 연구대상으로 주목 받기 충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시선집 『바다를 옆에 모시고』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김녹촌 동시의 형상화를 시적 어조와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성적 어조를 통해 형상화된 김녹촌의 동심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정신을 전달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김녹촌 동시의 문학적 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시적 어조와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아동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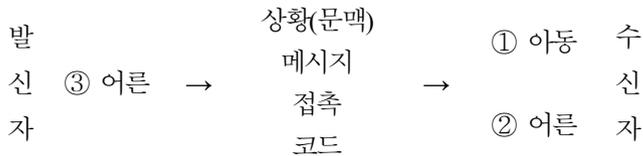
동시는 아직도 직접 소리 내어 읽히는, 낭송의 역할이 유효한 장르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동시가 교육 현장에서 직접 읽혀지고 노래로 불리면서, 짧고 간결한 문장의 반복을 통하여 아동의 몸에 각인될 수 있다는 동시의 기능적인 측면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교육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듬이 강조되는 읽는 시에서 이미지가 강조되는 보는 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현대에서도, 여전히 동시는 직접 소리 내어 읽히고 있다.

동시 작품을 읽을 때, 일차적으로 독자가 접하게 되는 것은 시적 화자의 목소리이다. 시적 화자는 시에서 발화를 이끄는 주체로, 시의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적 장치이다. 시

집』에서, 4부는 『한송이 민들레야』에서, 5부는 동시집 『꽃 앞에서』에서 선별한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인은 화자를 매개로 독자와 소통하는데, 이때 화자는 ‘시적 제재 및 주제·상황·사건·등장인물·청자 등’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의 시적 대상을 지각하고 언어화하는 전략적 주체로 여겨진다.⁴⁾

특히, 동시에서의 화자는 크게 성인화자와 아동화자로의 유형화를 통하여 시적 주체로서 전략적인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이는 동심이 발화되는 지점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심’은 상황과 코드로 인하여 다르게 의미화될 수 있다. 물론 아동문학을 통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모든 발신자, 작가는 어른이라는 점은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전제된다. 아동문학은 성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동심이 의미화될 수 있는 상황은 수신자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화 작용은 발신자의 메시지가 ‘아동’인 수신자를 향했을 때 발생되는데, 이는 다음의 도표 중 ①에 해당된다.



①에 해당되는 아동독자는 아동문학 텍스트를 접하며, 자신의 동심을 형성하는 무언가를 축적해 나간다. 이는 아동독자를 향한 작가의 계몽적 목적의식이 정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화 작용은 발신자의 메시지가 ‘어른’인 수신자를 향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②에 해당된다. 이 때 의미화는 성인이라는 같은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두 행위자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데에서 혹은 아동독자에게 전달하고

4) 정끝별, 「21세기 현대시의 화자 유형에 관한 사례 분석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1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535-536쪽 참조.

자 하는 동의 선상에서 동심을 발현한다. 이외에도 발신자 스스로가 의미화작용을 거치는 동심이 발동되는데, 이것이 바로 ③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동문학 텍스트에 일차적으로 발현된 동심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는 아동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동시에 성인화자와 아동화자가 다채롭게 등장할 수 있는 이유와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

즉, 동시는 성인과 아동의 복잡한 양상을 이중으로 모두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장르이다. 이러한 장르적 특징은 화자의 유형과의 관계도 재고해보게 한다. 동심이 발현되는 각 지점에 다양하게 유형화된 화자들을 호명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큰 틀에서 성인화자와 아동화자의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유형화에 따라서 선택된 화자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어조의 발현을 통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형성시키게 된다.⁶⁾

독자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내포하고 있는 독특한 어조를 통해 동시에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에 의하면 어조는 특별한 분위기나 감정을 표현하는 목소리의 조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호와 정서가 교차하는 장소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어조는 ‘교활하거나, 통명스럽거나, 멋내거나, 애처롭거나, 경쾌하거나, 비굴하거나, 세련되거나, 기운차거나, 오만하거나 등’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⁷⁾

독자는 동시를 읽으면서 다양한 어조를 체험할 수 있다. 이때의 어조는 시인이 작품 속에 설치해 둔 특별한 분위기나 감정이다. 독자는 시인

5) 정다운, 같은 글, 23-24쪽 참고.

6) 위의 도표에서 ①의 상황에서 성인화자가 등장하게 되면, 주로 아동에게 말을 건네거나, 권고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 ②의 상황에서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성인화자의 등장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복잡한 장르적 특징이 다양한 시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동시를 구조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7) 테리 이글턴, 박령 역, 『시를 어떻게 읽을까』, 경성대학교출판부, 2010, 190쪽.

의 의도된 어조를 통해 작품을 접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동시 속에서의 어조는 시인의 의식과 독자를 연결해 주는 가장 일차적인 접촉 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동심의 씨앗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조에 동심 형상화의 일차적 장치를 설치해 놓는 것이다.

리차즈(I. A. Richards)는 어조를 의미와 감정, 의도와 더불어 시의 총체적 의미를 형성하는 시적 의미의 하나라 했고, 웰렉(R. Well)과 워렌(R. P. Warren)은 내적 형식의 하나라고 했다. 일상생활에서 의미의 대부분은 어조에 의해서 지시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어조는 무엇인가를 말할 때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어의 의미는 어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런 어조는 제재와 청중(독자)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정의된다. 시인은 단순히 제재를 다루지 않는다. 그는 시적충동을 느끼는 정서적 상태, 어떤 심적 상태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또는 독특한 시각에서 제재를 다룬다. 이로 인해서 화자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시인은 결코 지적·정서적인 무(無)의 상태에서 글을 쓰지 않는다. 시인은 시를 쓸 때 어떤 감정상태의, 비판하는 입장의, 또는 지적으로 냉정한 어떤 존재가 된다. 그리하여 ‘딱딱한(또는 공식적인)·부드러운(또는 비공식적인) 어조, 거만한·겸손한 어조, 냉정한·감정적 어조, 직선적·반어적 어조’ 등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재에 대한 시인의 태도와 입장과 결부되어 있다.⁸⁾ 여기서 김녹촌의 동시 한 편을 분석해 보자.

억만 년이 흘러도
늪을 줄 모르는 바다
그 바다로 오너라.

8)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8, 258-259쪽 참고.

노마야, 영이야,
푸른 바다의 마음의 창을 열자.

파란 유리알 교실에 턱을 괴고
동화책을 읽듯
푸른 바다를 읽으며
우리 모두 소라의 꿈을 키우자.

떡갈나무 이파리 같은
귀바퀴로
저 밤새워 쏘알거리는
바다의 속삭임을 들어 보아라.

- 김녹촌, <바다로 오너라> 일부⁹⁾

위에 인용된 동시 속에서 화자는 노마와 영이로 대표되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화자는 아이들을 “억만년이 흘러도 늙을 줄 모르는” 바다로 초대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늙음을 모르는 바다는 아이들의 세계이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는 시적 화자의 바람이 담겨있는 이상적 공간이기도 하다. 화자에게 호명된 노마와 영이는 바다를 읽고 들으며 꿈을 키워 나가라는 화자의 당부를 듣는다. 이러한 당부는 “파란 유리알 교실에 턱을 괴고”, “떡갈나무 이파리 같은 / 귀바퀴로”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순진무구한 아동의 표상이 바다에서 꿈꾸며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동시 텍스트를 접할 때 화자를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사실 텍스트에는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이 아무것도

9) 이하 모든 인용시는 김녹촌 동시집 『바다를 옆에 모시고』(온누리, 2006)를 참고한다.

없다. 그것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만 작품에 부여한 가정일 뿐이다. 아마도 화자는 남성적 성격을 지닌 여성일 수도 있다.¹⁰⁾

여기서 우리는 화자를 남성이라고, 남성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여성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는 쉽게 ‘김복춘’이라는 실제 시인과 동시 속 화자를 일치시키게 된다. 시인이 남성이기 때문에, 화자 역시 남성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독백 장르인 시의 화자를 실제 시인과 일치시켜 남성적 어조를 지닌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인과 작품 속 화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선배 시인들의 작품을 통하여 학습해 왔다. 여성적 화자를 내세운 남자 시인들의 작품도 익숙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목소리를 ‘남성적이다 혹은 여성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

<표 1> 시적 어조의 성격 구분

딱딱한	부드러운
냉정한	감정적인
직선적인	곡선적인
힘찬	여린
.....
< 남성적	여성적 >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위에 제시된 표의 왼쪽 ‘딱딱한/냉정한/직선적인/힘찬’에 가까울수록 남성적인

10) 테리 이글턴, 같은 글, 192쪽.

것으로, 오른쪽 ‘부드러운/감정적인/곡선적인/여린’에 가까울수록 여성적인 것이라고 사유한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넓은 의미를 포용하고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유의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는 작품 속 어조를 ‘남성적 어조’ 혹은 ‘여성적 어조’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동시 속 어조들은 ‘여성적 어조’의 특징들이 주로 나타난다. 아동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화자들의 어조는 부드럽다. 또한, 아동의 가면을 쓰고 있는 화자들 역시,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냉정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부드럽고 감정적이다.

하지만 김녹촌 동시 속 시적 언어들은 ‘남성적’이라고 규정되어지는 일정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김녹촌의 시적 어조를 ‘남성적 어조’로 판단하게 한다. 김녹촌의 동시 속 다양한 기표들이 ‘딱딱한/냉정한/직선적인/힘찬’의 것과 가까운 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드러운/감정적인/곡선적인/여린’ 것들이 김녹촌의 동시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배적인 화자의 태도가 남성적인 성격을 지닌 것과 가까운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위에서 인용되었던, <바다로 오너라>를 살펴본다. 이 동시 속 화자는 노마와 영이를 부르며, 일련의 행동들을 촉구하고 있다. “바다로 오너라”, “마음의 창을 열자”, “소라의 꿈을 키우자”, “바다의 속삭임을 들어 보아라”고 말하는 화자의 목소리는 힘차다. 화자의 목소리가 남성적 어조와 결합되어, 독자로 하여금 더 강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 인용된 시에 등장하는 화자의 어조는 ‘남성적 어조’의 기표인 ‘딱딱한/냉정한/직선적인/힘찬’ 것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김녹촌 동시에서 ‘남성적 어조’가 지배적인 것은 당연할 수 있

다. 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화자가 주로 순진무구한 아동이 아닌, 아동을 바라보고 있는 혹은 아동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성인화자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남성적 어조’가 성인화자의 발화 관계 속에서 표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김복춘은 동시를 통해 아동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심어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시인의 목적의식 발현은 아동을 향한 직선적인 호명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남성적 어조’가 시적 어조로 선택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딱딱하고 냉정하지만 힘찬 어조는 아동으로 하여금, 구성된 동심을 세계의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 대신 신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김복춘 동시에 아동을 역사적 구성물로 보는 근대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복춘은 등단 이후 열심히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동시집을 비롯하여, 동요집·동시선집·번역선집·글쓰기 이론서·동화 등 다양한 어린이 문고를 집필하였다.¹¹⁾ 그리고 어린이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문학 관

11) 김복춘은 1969년부터 『소라가 크는 집』(손춘익 공저, 보성문화사), 『쌍안경 속의 수평선』(한빛사), 『동시선집1』(신현득 공저, 교학사), 『언덕배기 마을 아이들』(범아서관), 『산마을의 봄』(인간사), 『태백산 품 속에서』(웅진), 『진달래 마음』(대교문화), 『꽃을 먹는 토끼』(창작과 비평), 『꽃 앞에서』(그루), 『한 송이 민들레야』(대교출판), 『독도 잠자리』(파랑새어린이), 『바다를 옆에 모시고』(온누리) 12권의 동시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김복춘은 동시집 외에도 동요집 『내 고향 바다: 김복춘 노래시 동요곡집』(한국음악교육연구회), 동시선집 및 번역선집 『마늘 심는 마을』(온누리), 『웃는 얼굴 하하』(대교), 『산으로 가는 고양이』(온누리), 『개나리 헬리콥터』(지식산업사), 『호박도둑놈』(지식산업사), 『나도 민들레처럼』(지식산업사), 『개미야 미안하다』(온누리), 『거꾸로 오르기』(온누리), 『새끼토끼』(온누리), 『덩치 큰 개미』(지식산업사), 『발가락』(지식산업사), 『취불놀이』(지식산업사), 『풍물 연습』(지식산업사), 글쓰기 이론서 『어린이 시 쓰기와 시 감상지도는 이렇게』(온누리), 『올바른 일기 쓰기 및 생활문 쓰기 지도는 이렇게』(온누리), 『글 쓰기 박사가 되는 길』 1·2·3(온누리), 동화 『선생님은 괴짜를 좋아해』(대교출판),

런 강의를 꾸준히 이어갔다. 또한,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아동의 글쓰기 및 독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는 아동문학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심어주겠다는 김녹촌의 분명한 목적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평소 교단에 있으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떠한 험난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과 대결하여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는, 올바른 자기 모델을 지니고 살아가는 굳건한 <어린이상>을 항상 머리속에 그리며 추구해 오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정신적 양식이 되어 주어야 할 한국의 아동문학 작품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나약하고 감상적이며 회고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다. 그래서 나는 보다 건강하고 힘지고 가슴 더워지는 작품을 쓰고 싶은게 나의 소원이었다.¹²⁾

인용된 구절은 김녹촌의 동시집 『쌍안경 속의 수평선』 끝에 덧붙여 있는 글이다. 이 글에는 창작활동에 임하는 시인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는 교단에 있으며 아이들에게 정신적 양식을 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문학 작품들은 감상적이고 회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현실을 직시하고 어떠한 험난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과 대결하여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 건강하고 힘찬 동력을 심고자 했다. 김녹촌이 생각하는 건강한 문학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담긴 정신적인 양식이기 때문이다.¹³⁾

『일등군단』(과랑새), 『김유신』(과랑새어린이), 수필집 『토함산 노랑제비꽃』(그루) 등을 집필하며 적극적인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정다운, 「김녹촌 동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7쪽 참고)

12) 김녹촌, 「책 끝에」, 『쌍안경 속의 수평선』, 한빛사, 1974, 142-143쪽.

13) 정다운, 같은 글, 37쪽 참고.

이와 같은 인식은 근대 이후 발견된 아동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혹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거쳐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를 요구받았다. 즉, 아동은 발전되어야 할 혹은 보호되어야 할 특별한 존재 대상으로 새롭게 그 위치를 자기매김한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에서 아동은 근대 이후 발견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아동’의 개념은 극히 최근에 형성된 것일 뿐이라고 역설하며, ‘아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도의 역사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물론, 아동은 예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대상화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어느 시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진은 아동이 발견된 것은 전통적 사회의 자본주의적 재편성의 일환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물론 모든 사실을 자본주의에 근거해 설명해야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덧붙인다. 근대 이후 혁명의 주역들은 맨 처음 ‘학제’와 ‘징병제’를 반포하여, 이를 통해 국가 전체를 재조직한다. 근대 국가란 그 자체가 ‘인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교육 장치가 된다. 이는 종래의 생활양식과 신분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변화를 꾀하며,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한다. 아동문학가들이 작품을 통해 지향하는 ‘진정한 어린이’, ‘진정한 인간’은 근대 국가 제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고진은 아동문학 속에 등장하는 아동이, ‘현실의 어린이’ 혹은 ‘진정한 어린이’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아동문학 속 아동은 ‘현실의 어린이’ 쪽에서 보면 전도된 관념일 뿐이라고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아동문학은 아동이 부재하는 문학이다. 아동문학을 창작하는 작가는 어린이 쪽에 서서 발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른의

입장에 서서 어린이가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 나가는 길을 제시한다.¹⁴⁾

김낙촌 역시 고진의 역설에서 등장했던 아동문학가들과 비슷한 노선을 걷는다. 그는 교단에 있으며, “올바른 자기 모럴을 지니고 살아가는 굳굳한 <어린이상>을 항상 머리속에 그리며 추구해” 왔다. 이때 언급되는 ‘굳굳한 <어린이상>’은 ‘현실의 어린이’의 입장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른의 입장에서 아동이 가길 바라는 길이 내재되어 있다. 즉, 어른의 입장에서 구성된 김낙촌의 목적이 반영된 아동이 작품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낙촌의 작품에는 근대 이후 발견된 아동에 대한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아동에 대한 지각은, 자연스럽게 아동의 성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아동문학의 역할이 부각된다. 아동문학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작품 안에 자신이 지향하는 ‘아동상’을 그려 넣는다. 실제 아동의 입장에서 발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인 작가의 목적의식이 투영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근대적인 문학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신이 구성한 ‘아동상’이 투영된 아동문학 작품을 통하여, 작가는 일종의 간접교육을 기대한다. 문학작품은 교육의 장에서 십분 활용되고, 문학작품 속에 존재했던 아동이 실제 아동의 지평에 새겨진다. 성인 작가의 이상으로 구성된 동심이, 실제 아동의 동심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즉, 동시 작품을 통해 소통의 장에 들어온 김낙촌의 이상이 실제 아동의 이상이 되는 것이다.

14)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04, 166-187쪽 참고.

3. 남성적 어조와 동심의 형상화

김복춘에게 있어서 동심적 상상력은 ‘갈등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시인이 심어주고 싶은 건강한 정신’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동된다. 시인이 인식하는 세계는 아동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회적·문화적 장애물들이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다양한 장애물들은 아동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아를 갈등상태에 놓이게 하고, 시인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화해의 방법을 동심의 형상화를 통해 제시하고 독자에게 전달한다.

김복춘이 바라본 세계에서 아이들은 생활고로 인하여 소외되고, 도시문명 속에서 병들어가며, 밀려드는 외래 문물로 인하여 역사와 전통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상적 세계에서 분리된 아이들을 향한 시인의 무한한 애정은 동심적 상상력을 구현하게 한다. 동심적 상상력은 ‘소외된 아이들을 대자연의 힘으로 치유하고, 도시문명 속에서 병들어가는 아이들의 삶에 건강한 농촌의 가치를 소환하며, 무분별한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역사와 전통을 잃어가는 아이들에게 삶의 뿌리로서의 역사를 계승하는 용기를 불어주는 방식’으로 발현된다.¹⁵⁾

이와 같은 동심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김복춘 동시의 ‘남성적 어조’는 시인의 동심을 형상화하는 일차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즉, ‘남성적 어조’를 앞세운 화자의 목소리가 김복춘의 동심을 형상화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복춘 동시 속 어조는 ‘남성적 어조’라고 명명할 수 있다. 시적 언어와 화자의 태도가 ‘남성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일정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김복춘의 동

15) 정다운, 같은 글, 42쪽. (김복춘의 동심적 상상력과 시의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인용한 글의 III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시가 ‘남성적 어조’를 구성하고 있는 지점을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동심 형상화의 효과를 함께 살펴본다.

먼저, 김녹촌의 동시 속에서 사용되는 시적 언어가 문제 상황을 직접 가리키고 반복하며, ‘남성적 어조’의 토대를 마련한다. 보통 동시는 아이들의 희망적인 동심을 심어준다는 목적의식 아래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고 있는 언어를 주로 차용한다. 그래서 동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간접적인 것이 많다. 일차적인 문제 상황을 시어로 제시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에 시인이 자체 심의를 거쳐 또 다른 의미에서 다듬어진 시어가 작품 속에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녹촌의 동시에서는 동시 속 언어로 보기에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시어가 직접적인 문제 상황을 가리키며 작품의 곳곳에 등장한다. 이 때 사용되는 시어는 자연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주로 오염되거나 인공적인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자연’을 완전한 세계로 보고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갈등의 세계로 보는 시인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시 한복판을 뚫고

흐르는 강 / 시커먼 강. (...중략...)

붕어도 피라미도 모래무지도

찾아볼 수 없는 강 / 배가 아파 모두 다 / 죽어 버린 강.

으리으리한 벽돌집에

마당에까지 타일을 바르고

그렇게도 깨끗한 체 그렇게도 잘사는 체

으스대는 도시 사람들인데,

부엌에서 수돗가에서 흘러나오는 건
 왜 그리 모두가 더럽고 시커멓고 / 냄새 나는 것들뿐인 것일까?

- 김복춘, <시커먼 강> 일부

위의 작품은 김복춘의 동시 <시커먼 강>의 일부이다. 동시의 화자는 도시의 중앙에 흐르는 강을 ‘시커먼 강’으로 규정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화자가 이야기하는 ‘시커먼 강’은 “모두 다 / 죽어 버린 강”으로 반복 된다. 이어서 강이 죽어버리게 된 이유를 ‘도시 사람들’의 ‘부엌 수돗가’에서 찾는다. 도시는 ‘붕어와 피라미와 모래무지가’ 사는 곳과의 분명하게 구분되는 공간이다. 도시에 흐르는 강을 ‘죽음’이라는 상황과 직면하게 하는 화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딱딱하고, 냉정한 성질과 가깝게 여겨진다. 그저 담담하게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반복·확장하며 현실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남성적 어조’는 비판적인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힘을 제공한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목소리는 곧장 ‘죽음’이라는 시적 언어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 그림 그릴 때면 / 무작정 시커멓게 먹칠해 버리는 강 / 죽음의 강”으로 절정에 다다른다. 아이들이 검정색으로 칠하는 강은 비판의 지점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아직은
 눈 녹은 바람 선들이는 길거리에서
 할머니 봄을 앞서 / 봄을 파는데,

귀여운 손자인 양
 치마폭에 묻어 두고
 기계병아리를 / 파는데,

삐약 삐약 / 개나리꽃처럼 노랗게 피어나
거리에 메아리 치는 / 병아리 소리.

- 김녹촌, <병아리 소리> 일부

위에 인용된 <병아리 소리>의 화자는 봄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다. 거리에 “개나리꽃처럼 노랗게 피어나는” 병아리 소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기계병아리’라는 시어는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호명하며, 시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어 버린다. ‘기계병아리’라는 시어는 독자로 하여금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구분을 전제하게 한다. 그리고 독자는 더 이상 “귀여운 손자인 양 / 치마폭에 묻어”두는 할머니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기계병아리’라는 시어가 등장한 순간 이는 문제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할머니의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을 의미하던 치마폭이 문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독자는 봄을 앞서서 봄을 팔아야만 하는 할머니의 상황을 생각하게 한다. 할머니가 실제 손자가 아닌 병아리를 품고 있는 이유를 고민하게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계병아리’를 현실의 어린이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어린이의 문제 상황과 맞게 된다. 이는 도시화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안타까움이 동시 속에 형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현실 속 문제 상황이 드러나는데 ‘남성적 어조’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김녹촌의 동시 속에서 사용되는 거친 비유들이 ‘남성적 어조’를 구성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문제 상황의 직접적인 호명 역시 거친 비유들이 더해졌을 때, ‘남성적인’ 성질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게 한다. 거친 비유들은 주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중심으로 동시의 청각적·시각적 자극을 더해준다. 더불어 동시를 힘차게 읽을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하여, 소리 내어 읽는 재미를 더해 주기도 한다.

우리의 목숨줄 같은 물줄기
물이 없어 벼농사를 망치면
우리 식군 굶어 죽을 판이고
나는 중학교에도 가질 못한다.

폭석폭석 먼지가 나도록
메마른 논바닥
타던 목을 적시며
지도처럼 지도처럼 서서히 번져 나간다.

목마른 눈이 꿀꺽꿀꺽
물 마시는 소리
새까만 흙이 짹짹
입맛 다시는 소리

- 김복춘, <물대기> 일부

위에 제시된 동시 <물대기>에서는 중학교 입학 앞 둔 화자가 등장한다. 화자는 ‘벼농사를 망치면 가족의 경제력이 악화되고, 자신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걱정한다. 동시 속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현실 속 걱정을 나열시키는 것은 화자를 더욱 남성인 것으로 인식하고 가정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진 구절에서는 논바닥에 물을 대는 장면이, “꿀꺽꿀꺽 / 물 마시는 소리”, “짹짹 / 입맛 다시는 소리”로 거칠게 표현된다. 거친 묘사는 독자의 청각을 강하게 자극하고 시의 어조를 남성적인 것으로 연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김복춘의 동시 속에 자주 등장하는 명령문·의문문이 ‘남성적 어조’를 완성시킨다. 명령은 ‘딱딱한 / 냉정한 / 직선적인 / 단호한’

등의 남성적 이미지를 지배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김녹촌 동시에서는 화자의 명령과 질문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작품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 계기를 마련하고, 행동과 실천을 촉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녹촌이 추구하는 ‘굳굳한 <어린이상>’을 만들어가는 데 명령문이나 의문문이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의 동시를 살펴보자.

비야, 오너라.
 마구 쏟아져 내려라.
 두 달 넘어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비가 아니더냐?

빗방울아, 좀더 굵어져라.
 좀더 세차게 쏟아져 내려라.
 오는 김에 땅 속까지 폭 젖도록
 흠씬 내려야 한다.

- 김녹촌, <단비> 일부

인용된 동시 <단비>에서 화자는 두 달 만에 비가 오는 날, 자신의 간절함을 “비야, 오너라 / 마구 쏟아져 내려라”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에 담는다. 그리고 뒤이어 누군가에게 자신의 발화에 대한 동의를 질문으로 구한다. 여기에 “마구”, “목이 빠지게”, “세차게” 등의 더 거친 표현과의 결합을 시도하며,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 화자를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연상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화자에게 호명되는 비와 빗방울은, 작품을 읽는 아동을 비유한 것일 수 있다. 시인은 독자에게 힘차게 또, 마른 땅 속까지 젖히는 비와 빗방울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시인이 요구하는 ‘굳굳한 <어린이상>’

이 될 수 있다. 힘차게 내리는 비는 생명력을 지니며, 앞으로의 성장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매개체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다. 김복춘의 ‘균곤한 <어린이상>’은 그의 작품 속에서 종종 푸른 이미지로 그려진다.

순이야, 돌이야,
어서 바다로 오너라!

갈매기처럼 갈매기처럼
푸른 바다를 읽으며
초록빛 / 푸른 가슴을 키워 보자.

- 김복춘, <바다로 오너라> 일부

바다를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화자는 순이와 돌이를 바다로 부른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초록빛 / 푸른 가슴”을 키울 것을 명령적 어조에 실어 당부한다. 이는 작품에 푸른 이미지로 형상화된 동심을 아동들의 마음에도 심기를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특징들이 김복춘의 동시를 ‘남성적 어조’가 지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게 한다. 다시 말해, 문제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호명하고, 거친 비유를 사용하며, 명령문·의문문을 사용하는 일련의 구조적 특징이 김복춘 동시의 시적 어조를 ‘남성적 어조’로 규정짓게 한다. 이렇게 규정된 ‘남성적 어조’는 동시를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시인이 구성한 동심을 세계의 규칙으로 수용하게 한다. 남성적 어조가 직접적인 시적 언어를 거친 비유를 통해 명령하고 질문하는 일련의 과정이 김복춘의 동심을 세계의 규칙인 것처럼 맹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4. 맺음말

본고는 김녹촌의 동심이 형상화되는 지점을 시적 어조를 중심으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의 문학성이 작품에서 구현되는 동심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을 염두했을 때, 위의 작업은 김녹촌 동시의 문학성을 밝히는 데 적극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녹촌의 동시선집 『바다를 앞에 모시고』에 수록된 동시를 중심으로, 김녹촌 동시의 시적 어조를 분석하였다.

동시의 시적 어조는 동심을 형상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화자가 구현하는 시적 어조에는 시인의 의도와 목적의식이 드러나 있다. 특히 김녹촌의 시적 어조는 성인 화자가 발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남성적 어조’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을 미성숙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근대적 인식과, 동시를 통해 아동을 완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려는 시인의 목적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다.

김녹촌의 동시 속에서 남성적 어조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김녹촌의 동시 속에서 사용되는 시어는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아동들이 직접 생각하기 힘든 ‘죽음, 생활고 등’의 소재를 작품 속에서 구현하는 데 성인화자의 남성적 어조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김녹촌의 동시 속에 사용되는 비유가 거칠다. 거친 묘사는 주로 강한 의성어와 의태어로 구체화되어 동시의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녹촌의 동시 속에는 명령문과 의문문이 자주 등장하는데, 명령문과 의문문으로 완성되는 구절은 독자로 하여금 남성적인 어조를 느끼게 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시적 구성 방식은 김녹촌 동시를 ‘남성적 어조’가 지배적인 작품으로 완성되게 하였다. 이는 김녹촌의 동심을 형상화하는데, 시인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남성적 어조’

가 독자로 하여금, 동시 속에서 전달되는 동심을 세계의 규칙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물론 동시 속에서 시인의 동심을 형상화하는 데 ‘남성적 어조’만이 활용된 것은 아니다. 다양한 시의식과 시적 구성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김복춘의 동심이 작품 속에 형상화되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양상 분석은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성적 어조’가 김복춘의 동심의 형상화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김복춘 동시 속에 등장하는 ‘남성적 어조’에 주목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동시의 유미주의적 어조로 고착화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 근대 이후 발견된 아동이라는 정체성과의 연관 속에서 보다 정치하게 고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복춘, 『바다를 옆에 모시고』, 온누리, 2006.
 _____, 『쌍안경 속의 수평선』, 한빛사, 1974.
 _____, 『언덕배기 마을 아이들』, 범아서관, 1982.
 _____, 『태백산 품 속에서』, 웅진, 1985.
 _____, 『꽃 앞에서』, 그루, 1990.
 _____, 『한 송이 민들레야』, 대교출판, 1994.
 김복춘·손춘익 공저, 『소리가 크는 집』, 보성문화사, 1969.

2. 논문 및 단행본

- 김성규, 「김복춘론-두 공간이 만나는 세계」, 『한국현대아동문학 작가작품론』, 집문당, 1997.

- 권혁웅, 「현대시의 어조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8.
- 서효석, 「독자의 예리한 시선과 때묻지 않은 시인의 생각- 김녹촌의 동시집 <꽃 앞에서>- 박근철의 동시집 <바람이 그린 그림>」, 『아동문학평론』 제57집, 아동문학평론사, 1990.
- 원종찬, 「개구리 소리와 보리밭: 이오덕과 김녹촌」, 『어린이문학』 제40집,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2000.
- 정끝별, 「21세기 현대시의 화자 유형에 관한 사례 분석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1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 정다운, 「김녹촌 동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소명출판, 2009.
- 최명표, 「‘다다’의 시학: 김녹촌 론」, 『아동문학평론』 제61집,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91.
- 최지훈, 「김녹촌론- ‘새’와 ‘풀’, 그 이질성과 동질성」, 『한국현대아동문학론』, 아동문예, 1991.
- 하청호, 「그리움의 정서: 정운모·김녹촌·권영세·박두순·오승강·강현호」, 『아동문학평론』 제61집,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91.
- Karatani, Kojin,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04.
- Terry Eagleton, 박령 역, 『시를 어떻게 읽을까』, 경성대학교출판부, 2010.

이 논문은 2014년 4월 29일에 투고되어 2014년 5월 14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4년 5월 1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김녹촌 동시의 남성적 어조와 동심의 형상화

정 다 운

아동문학의 문학성은 동심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동심이 형상화되는 지점을 짚어가는 일련의 과정은, 아동문학의 특질을 도출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김녹촌 동시에서 동심이 형상화되는 지점을 시적 어조를 중심으로 추적하여 그 문학성을 밝히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김녹촌의 동시는 ‘남성적 어조’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가 주로 구현되는 여타의 동시들과 변별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김녹촌 동시의 시적 어조를 분석하는 것은 김녹촌 동시만의 독특한 특질을 발견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먼저, 시적 어조와 동심 형상화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인의 아동 인식이 어떻게 남성적 어조로 발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남성적 어조’를 중심으로 형상화된 김녹촌의 동심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살펴본다.

읽는 시에서 보는 시로 전환된 현대에서, 동시는 여전히 현장에서 낭송되는 특수한 장르이다. 그래서 동시를 읽는 독자들은 화자의 어조(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시인의 인식은 시적 언어로 기표화 되고, 언어에 담긴 화자의 목소리는 일정한 동심을 구성한다. 특히, 김녹촌 동시에서는 ‘남성적 어조’가 시적 언어의 기표로 선택되어 나타난다. 이는 역사적 구성물로 아동을 인식하는 시인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남성적 어조’는 주로 쓰이는 단어와 종결형 어미에서 구성되고, 작품에서 완성된 강한 어조는 독자들에게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김복춘은 ‘어린이들의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품을 쓴다. 김복춘의 동시에서 구현되는 ‘남성적 어조’는 아동의 세계에 일련의 규칙을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이 지점에서 김복춘만의 독특한 동심이 형상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김복춘 동시에서 나타나는 ‘남성적 어조’는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아동 인식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작품 속에 투영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김복춘, 동시, 남성적 어조, 동심 형상화, 아동

<Abstract>

Masculine tone in Children's Poems of Kim, Nokchon

Jeong, Daun

Literary value in children's literature is revealed through childlike innocence. Therefore the series of process to find the point that the innocence of children is embodied could be the work of drawing a characteristic of children's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racing the point that the innocence of children is embodied focusing on the poetic tone.

Kim Nokchon's poem is generally appreciated that it has a masculine tone. It is the thing that his work has a distinctive feature from other children's poem which was given body with a kind and tender tone. Thus, analyzing poetic tone in his work helps to find the unique characteristic only in his poems.

Firstly, look closely into the point of poetic tone and childlike innocence embody. On the basis of this, analyze how the poet's perception toward the child is expressed in masculine tone. Lastly, search how his innocence of childhood which is embodied focusing on 'masculine tone' conveys effectively to the readers.

In this modern time that the tendency of poem changed from reading poem to seeing poem, children a poem is a unique genre which is read aloud. So the reader who reads child's poem easily accesses to the tone of the speaker. Awareness of poet turns to poetic language as a signifier and the speaker's tone in the language composes consistent childlike innocence. Especially in Kim Nokchon's child poet, masculine tone is expressed as a signifier. It is the result of poet's understanding of the child that child is a historical composition. In his

work, masculine tone was made up with mainly used word and conclusion type ending and an empathic tone works effectively when present the standard of rules of the poetic world to the reader.

Kim Nokchon wrote for providing mental food for children. Masculine tone in his work is effective for making a series of rule in the world of child and his own unique innocence of childhood is embodied at this point. In other words, masculine tone in his work is the result of a clear sense of direction reflection in the work, based on the awareness toward children as a historical composition.

Key words: Kim Nokchon, Children's Poem, Masculine tone, Childlike innocence imagery, Child